

성 유대절 베드로

청담동성당

강남구 삼성로 720 (홈페이지: www.cdssd.org)
 사무실: 02)3447-0750~1 팩스: 02)3447-0752

주 임 신 부 : 김민수 (이냐시오)
 부주임 신 부 : 심 욱 (베드로)
 부주임 신 부 : 방종우 (야고보)
 전 교 수 녀 : 박정숙 (아그리피나)
 최병애 (파우스티나)
 이새롬 (엘카나)
 사 목 회 장 : 손영모 (가브리엘)
 연 령 회 장 : ☎ 010-7186-7222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3시(어린이 미사),	오후 7시
	일요일	오전 6시, 9시, 11시(교중미사),	오후 3시(중·고등부), 5시(청년), 7시(일반)
평일미사	월요일 / 토요일	오전 6시	고 해 성 사
	화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주 일 미사 전 30분
	수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평 일 미사 전 15분
	목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병자 영성체
	금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유 아 세 례
			관 련 흔 배

③ 2019 성탄 판공성사 및 대림특강 안내

고해성사 (판공) 매 미사 전 (대림기간 중)
 * 성사를 보시고 반드시 성사표를 사무실이나 고해성사실 바구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참회예절 / 개별사죄경 / 공동보속

날짜 시간	12월 20일(금) 오후 8시 ~ 오후 9시 40분	선택 2가지 이상
	12월 21일(토) 오후 8시 ~ 오후 9시 40분	
보속	① 대림 특강 1회 이상 참여하기	
	② 평일 미사 2회 이상 참석하기	
	③ 본당 추천도서 읽기	
	④ 자선 행위 2회 이상 실천하기	
	⑤ 묵주기도 5단 바치기	
★ 어린이 · 청소년은 선행 2회 이상		

대림특강 2: 12월 17일(화) 오후 8시, 2층 대성전
4차 산업혁명의 성경적 의미와 크리스천의 사명
 안종배 교수 (국제 미래학회장, 한체대 미디어 영상학부 교수)

③ 성탄 대축일 미사 시간 안내

• 대축일 미사는 의무 대축일로 모든 신자는 대축일 미사에 오셔서 미사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화) <성탄 밤 미사>	오전 6시 (평일미사) 오후 8시 (성탄 전야미사, 미사 후 어둠나눔)
12월 25일(수) <성탄절>	오전 9시, 11시(교중) 오후 3시(어린이, 중·고등부 합동) 오후 7시 (*오전 6시, 오후 5시 미사는 없습니다.)

③ 초등부 주일학교 성탄 예술제

• 일시: 12월 21일(토) 오후 4시~ , 2층 대성전
 • 어린이들이 '준비한 예수님의 생일파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It's Party Time!!

③ 중·고등부 캐롤 가정방문 신청 (사무실 접수)

• 성탄을 맞이하여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우분들의 가정을 찾아가 캐롤을 불러드립니다. 많은 신청바랍니다.
 • 방문일시: 12월 24일(화) 오후 5시~ 오후 7시
 • 문의: 정 테오도로 (010-5645-7042)

③ 중·고등부 주일학교 동계피정 (12월 28일 신청마감)

• 일시: 2020년 1월 4일(토) ~ 1월 5일(주일) 1박 2일
 • 장소: 동천 성바로 성당 // • 회비: 4만원
 • 문의: 정 테오도로 (010-5645-7042), 성당 사무실

③ 모범적 신앙생활 하신 분을 찾습니다(12월 22일 마감)

• 본당에 헌신적으로 공헌하신 교우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 2층 대성전 로비에 추천서를 비치하시어 작성하시어 추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부분: 봉사상, 선교상)

③ 울뜨레아 송년의 밤

• 일시: 12월 15일(오늘) 오후 6시, 1층 프란치스코 홀

③ 구역주일 (12구역 주관)

• 일시: 12월 22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③ 2020년 첫영성체 가정교리 (6개월 과정)

• 일시: 2020년 2월 8일(첫모임) ~ 7월 19일
 • 대상: 첫영성체를 받지 않은 현 초등학교 2~5학년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본당 교적자 한함)
 • 문의: 김 루치아 (010-6847-5293)

③ 감사합니다

• 지난 로사리오 카페에서 열린 손뜨개 구유전시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판매금액 총 12,400,000원을 본당에 기부하였습니다.

③ 한가문연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 일시: 12월 20일(금) 오전 10시 미사, 2층 대성전

③ 캄보디아 선교체험

• 캄보디아 선교체험에 함께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 일시: 2월 14일(금)출발 ~ 2월 18일(화)도착
 • 문의: 김 헬레나 (010-8771-0401)

③ 라오스 청년 해외 봉사단 모집

• 일시: 2월 4일(화) 출발 ~ 2월 11일(화) 도착, 6박 7일
 • 장소: 라오스 파스캄
 • 비용: 항공료 개인부담 (50만원, *기타비용: 본당지원)
 • 문의: 김 프란치스코 (010-5449-6448)

③ 크리스마스 슈틀렌 빵 판매

• 문의: 김 헬레나 (010-8771-0401)

③ 대림 저금통을 12월 29일(주일)까지 사무실 제출 바랍니다.

③ 12월 15일(오늘): 자선주일 2차 헌금 (교구)

③ 영화 '프란치스코 교황: 맨 오브 히스 워드'

• <프란치스코 교황: 맨 오브 히스 워드>가 지난 11월 21일(목)에 개봉하였습니다. 교황의 삶을 그린 전기적 성격의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교황의 사상과 메시지를 전하는데 초점을 맞춘 영화로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 영화는 인근 영화관 시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영화 안내 공지 된 주보 1부 지참 시 1,000원 할인
 • 20인 이상 단체 관람을 원하시는 경우 문의바랍니다.
 (양종곤 PD : 010-9023-6797)

모임

- 12월 15일(오늘): 상임 위원회 / 전례분과
- 12월 16일(월): 성령 기도회 (강사: 김희숙 유닛)
- 12월 17일(화): 여성 성체조배회 / 해외선교 후원회
- 12월 18일(수): 여성 구·반장회의
- 12월 19일(목): 반주단 / 해설단
- 12월 20일(금): 남성 성체조배회
- 12월 21일(토): 태교모임

성가번호 입 당: 467 예물준비: 219, 220 성 체: 178, 160 파 견: 459

화답송

주님 저희를 구원 하리 오소서



주임 신부의 독서 사목 이야기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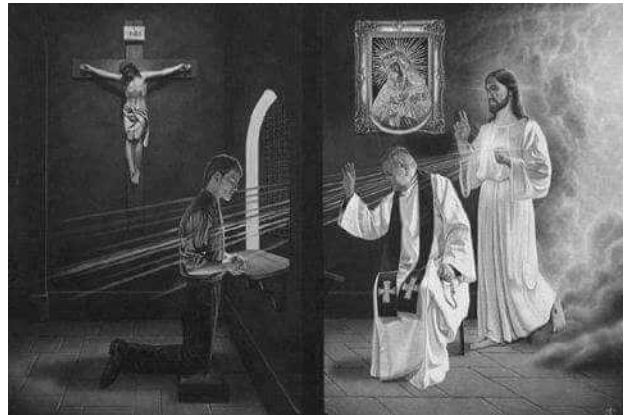
서평 <용서가 어려울 때>(7)

내로남불

내가 상처받게 된 데는 내 잘못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마음이 몹시 상한 때를 곱씹으면서 우리는 쉽게 모든 잘못을 상대에게 돌린다. 과연 전적으로 상대방이 잘못만 있을까? 잘 생각해보면 나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면서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한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루카 6,41) 두 개의 손가락은 상대방을 향해 비난하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런 착각과 자기 합리화는 상대방을 용서하는데 걸림돌일 뿐이다. “난 정말이지 누구한테도 잘못된 적이 없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는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이 나약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자신이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의 나약함도 인정해 줄 수 있게 되고 용서도 할 수 있게 된다.”(144쪽)

터놓고 이야기하기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내 경험과 감정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누군가에게 다가가 속을 보이고 싶지만 부끄럽기도 하고 자신의 나약함만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며, 인간은 관계 존재이기에 누군가의 도움에 기댈 때도 있어야 한다.



가족이나 친구, 교우, 혹은 본당 신부나 수녀도 좋다. 아니면 개별 고해를 통해 마음을 하느님께 열 수도 있다. 물론 우울증이나 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 받고 있다면 신앙을 존중해 주는 전문적인 치료사가 도움이 될 것이다.

남에게 터놓고 말할 때 주의할 사항은, 상처 준 사람을 험담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동정심을 얻어내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처 준 사람을 비방하거나 인신공격해서는 안 된다.”(156쪽)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면서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그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주입시켜 자신처럼 싫어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 가해자를 함께 나쁜 사람으로 몰아간다. 비난, 험담, 뒷담화, 깎아내리기, 흉보기 등으로 변질된다. 이런 식의 터놓고 이야기하기는 상처 받은 피해자에서 이제는 상처를 주는 가해자 역할로 변하게 된다. 여기에는 용서가 자리할 수 없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예수님께 청한다면 그분은 분명 딱 알맞은 누군가를 보내시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155쪽)

청담동 성당 주임 김민수 신부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봉헌 예물		감사 헌금 (12/04~12/10)			
대림 제 2주일	12,992,970원	정 요셉	100,000원	조 스테파노	200,000원
국군장병·수감자를 위한 2차	6,543,390원	정 골롬바	100,000원	김 라파엘라	300,000원
교무금	52,756,000원	이 이시도로	1,000,000원	한 마리아	50,000원
성소후원금 (13건)	399,000원	조 안젤라	100,000원	-	-
교무금 납부 현황		합계:1,850,000원			
총 세대수	4,194세대				
총 납부세대	1,453세대				
지난 주 납부세대	22세대				
총 납부율 (%)	37.4%				